

학부모, 교사에 '직접 전화' 막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보호 우선 추진방안 발표 학부모, 교사 통화·면담 요구 사전 고지·예약해야 교보위 없이도 소송비 지급...변호사비 선제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장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교사와의 대면 면담은 물론 전화 통화도 반드시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방안을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이번 교권보호 추진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무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보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정책은 단연 '민원창구 일원화'다. 서이초 교사의 무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 받았다는 교단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 윌하는 유·초·중·고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3~4개월 간 민원 사전예약 앱을 개발한다.

윤석만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과장)은 "병원 진료 예약처럼 민원이 상담을 희망하는 일시와 내용을 적어 앱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 후 그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앱에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과장은 "국회 교육위는 학교장, 서울교육청은 교감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견이 있어 협의를 진

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반복적·악의적 민원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조 교육감은 "이 자체가 악성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아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은 차단하는 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기 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안심번호 서비스나 업무폰, 교내 업무 전화에 녹음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든지, 업무시간 이외에는 어떤 방법든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교사 개인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는 건 지침만 만들면 쉬울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렇듯 경우 비상시 연락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함 국장은 "비상시에도 학교 대표번호를 통해 (민원인) 전파되도록 하면 개선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일상적 민원은 챗봇을 도입해 교사가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 또한 올해 2학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학교 보안관실 남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공간이 없을 경우 모듈러 교실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한다.

조 교육감은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심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교보위 개최 없이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 교원으로 완전히 인정받기 전인 소송 중에도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교원안심공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소송비를 선 지원받은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함 국장은 "패소했는데 환수하지 않으면 배임 우려가 있다"며 "환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내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분쟁조정 절차'도 강화한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인하는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교보위와 별도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월28일부터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을 교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교육부 고시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을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배치율이 56.8%에 불과한 초등 전문상담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단의 개정 요구가 많지만 시도교육청 권한을 벗어난 법 개정은 국회에 요청한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총 3가지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순차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원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즐거워요’ 아호레계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실내빙상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이낙연 캠프 댓글조작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김민석 강서구의원, 장애업무방해 혐의 고발

경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유리한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 카카오(다음)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 5월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전까지 확인된 것만 90여개 ID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댓글들, 이낙연 전 의원 의혹 관련 반박 및 응원 댓글들을 베스트 댓글로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내부 문건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연일 폭염에 열차운행도 비상 '장출 현상' 대비 감속 운행

연일 37도를 웃도는 폭염에 열차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일 기온이 높아지면서 햇볕에 직접 노출된 선로의 온도도 높아져 자칫 열차가 궤도 이탈(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도운영사도 레일의 온도 상승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45편의 고속열차의 운행이 20~29분 지연됐다.

현재도 레일 온도 상승 등의 추위를 보고 서행운행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레일의 온도가 상승하면 장출(張出)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철도운영사는 열차 서행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장출 현상은 레일의 온도가 상승하면 레일이 팽창해 그 압축력으로 인해 선로가 틀어지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7월1일에는 경부고속선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지나던 SRT 고속열차가 장출 현상에 휘어진 선로를 운행하다가 탈선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폭염시 햇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고속철도의 레일온도가 50~55도일 경우 레일의 온도를 주시하고 55~60도 일때 300km/h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230~170km/h로 감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레일의 온도가 60~64도일 경우 고속열차 운행속도를 70km/h까지 줄이고 64도 이상일 경우 운행은 중지된다.

코레일은 "발발더위가 이어지는 시간대에는 실시간 레일의 온도 측정을 강화해 전국 133곳에서 자동 살수 장치로 물을 뿌려 레일의 온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일의 온도변화를 보고 열차 운행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광주 동부소방, 장마 뒤 이어지는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 당부

광주 동부 소방서는 최근 광주에서도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되며 시민들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장흥소방,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소방안전대책 추진

장흥소방서는 약 5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안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여수소방, 차량 깔림 사고 인명구조 나서

여수소방서는 지난 7월 28일 소라면 인근 아파트 주차장 차량 깔림 사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대상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수난사고 인명구조한 시민에 표창 수여

광양소방서는 최근 수난사고 인명구조 유공자인 두 명의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은 주인공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구회인씨와 최춘범씨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가족 사랑나눔 지원사업 연합모금 협약식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7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층 나눔문화관에서 "보훈가족 사랑나눔 지원사업 연합모금 협약식"을 가졌다.

서선욱기자



강진경찰, 아동학대 예방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

강진경찰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살해 및 유기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